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5:27

이 물음은 종종 점검해야 할, 무척 중요한 질문입니다. 듣는 것이 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나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여인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5:27]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인이 들었던 것들, 지금 듣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여인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정보홍수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가 놀랍게 변했습니다. 먼저, '사람들'을 통해 듣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주막에 가야 세상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 '신문'이 나왔습니다. 인쇄기가 발명되면서 지면을 통해서 세상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어 '텔레비전'이 나왔습니다. 방송을 통해 세상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가요? 다들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이제는 TV를 잘 보지 않습니다. 인터넷 뉴스, 그리고 유튜브 등을 통해 듣습니다. 이른바 '개인방송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보의 소비자이자, 생산자가 되었습니다. 나도 뉴스를 만들어 전세계에 올릴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소식을 찾아서 언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4차 산업혁명시대'입니다. AI(인공지능)가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내가 정보를 선택하여 듣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제는 AI가 제공해주는 정보들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AI가, AI를 지배하는 그 누군가가 나를, 그리고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채우는, 매일같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두드리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입니다.

1. 하나님의 음성

우리 인간이 처음 들은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 참 좋다 하시는 주님의 탄성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에덴을 누리고, 잘 지키고 다스리라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너는 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너는 나의 피조물이요, 나는 너의 창조주임을 기억하라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너의 짝과 한 몸을 이루어 서로를 사랑하며 이 아름다운 동산을 누리며 나누며 살라 하시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너희를 사랑한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1) 우리의 존재의 위치와 가치를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31]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2:16,17]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사야 43:1,4]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2)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2:15]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스리라 하시니라

3)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창세기 2: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레위기 11:45]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태복음 22:37-40]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³⁸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³⁹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⁴⁰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신명기 6:4,5]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⁵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한복음 13: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2. 마귀의 음성

그런데 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다가 이 세상으로 쫓겨남을 당한 악한 영, 어둠의 영 마귀가 속삭이는 음성도 있습니다. 그는 거짓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심어줍니다.

[요한계시록 12:9]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3:11]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고린도후서 11:14]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요한복음 8:4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1) 자리를 이탈하게 합니다.

[창세기 3:4,5]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⁵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사야 14:12,13]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¹³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2)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시편 14:1]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요한일서 2:22]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3)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향하게 합니다.

[민수기 14:2-4]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³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4) 영원을 생각하지 못하고 현재에 머물게 합니다.

[누가복음 12:19]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요한일서 2: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베드로후서 3:3,4]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5)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합니다.

[창세기 4:23]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쉴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에스더 6:6]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디모데후서 3:1-5]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²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³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⁵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6) 헛된 일로 소란하게 합니다.

[시편 39:6]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출애굽기 23:1]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잠언 18:8]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시편 101:5]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잠언 17:4]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에베소서 4:29]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7)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합니다.

[민수기 13:33]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떼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스가랴 3:1-5]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와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²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³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⁴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⁵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와 천사는 곁에 섰더라

[느헤미야 4:3]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았습디다. 마귀의 음성만이 들렸습디다. 그래서 전에는 어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그래서 조금은 도도한 여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들을 하나씩, 둘씩 상실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분노하던 여인은, 이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부정한 여인이다. 자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나는 다 잃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들리지 않던 이름이 들려옵니다. 예수의 소문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왜 듣지 못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하는 까닭은?

1) 마귀가 듣지 못하게 막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1]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고린도후서 4:4]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2)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22]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²³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요한복음 18:10]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쉼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쉼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쉼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쉼 곳 없네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두 날개를 넓게 펼쳐야 합니다. 말씀생활과 기도생활로 주님을 향하여 날아 올라야 합니다. 또한 교회도 두 날개를 넓게 펼쳐야 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흠어져 삼삼오오 교제하며 함께 생명의 복음,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